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종려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7. 주여 우리 무리를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하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찬 환호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조롱과 비난으로 바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도성으로 묵묵히 들어가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없이 고난의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시간 거칠고 이기적이고 정욕에 찬 우리 마음에도 들어와 주십시오. 향방 없이 날뛰는 우리의 마음을 비끄러낼 기동은 주님뿐이십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품부하신 생의 뭉을 살아내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요15:14-15	인도자
----------------	-----------------	-----

♠ 교 독 문	60. 고난 주간	다함께
---------------	-----------------	-----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	-----

대표기도	I. 박정숙 선생 II. 장영숙 전도사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144. 예수 나를 위하여	다함께
-----------	----------------------	-----

성경봉독	마21:6-11	인도자
------------	----------------	-----

시22:1-11

박창운 권사

찬 양	찬양대
-----------	-----

말 씬	십자가, 믿어줌의 상징	김재흥 목사
-----------	--------------------	--------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김기석 목사

성 찬 식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510. 겿세마네 동산의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이제 거짓과 위선과 탐욕의 옷을 벗고, 진리와 사랑과 섬김의 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 눈빛이 맑은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월례회	4월 기도의 밤
찬양 인도 : 장성호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이춘희 집사

4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용길	윤성종	최영혜	정경례	김윤정
	헌금위원	구성실	박창운	김준호	김인걸	최영혜	장혜숙

죄, 사랑의 거부

인간은 사랑에 의하여 또한 사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인간의 사명, 그것은 곧 사랑이다. 사랑이란 인간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통하여, 자신으로 인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해서 변형되고 성화된 사랑도 포함한다. 종국적인 목표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다른 인간과 함께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삼위일체의 서광을 발견하고 사랑 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전세계와 인류와 함께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며 그밖에는 잘 해 나갈 방법이 없다. 또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은 자유로운 욕망이다. 그러므로 자유롭지 않고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욕망이다. 만일 그것이 당신의 일생을 대가로 바치는 것이라면, 그 욕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싸우도록 하라. 자유란 그 자체가 사랑의 결실이며 인간에게는 그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는 인간에서 새싹의 구실을 한다. 인간의 자유는 성장하는 자유이다.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며, 최고의 사랑을 할 때 비로소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랑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준다. 이기주의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뿐이다. 물론 그것은 육체적인 자유에 관한 문제는 아니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내적 상황이든 외적 상황이든 간에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고, 반항하거나 집착하고,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억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유이나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다. 인간은 이 사랑의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인간은 이 사랑마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죄악이다. 죄, 그것은 비뚤어진 사랑이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사랑에 대한 거절이다.

죄란 그 자신의 창조에 최대한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며(태만), 그 창조를 그릇되게 하는 것이며(관능성), 형제들을 잊고 자신만을 창조하는 행위이다(이기주의와 자만성).

죄란 타인에게 그들이 진보하고 또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내주어야 하는 봉헌을 거절하는 행위이다(부부와 가족의 모든 죄들).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삶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란 세계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 창조를 우리들의 이익 쪽으로 끌어당겨 본래의 순수한 목적을 왜곡하는 잘못이다(광범위한 뜻에서 노동에 기인한 모든 죄악).

죄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寬宥하시고 우리 형제들과 세계에 이르시도록 해주셨는데도 우리들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랑의 길을 거절하는 행위이다(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없으며 따라서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죄란 하나님을 각 개인의,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최고 목표로 인정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 자신을 염두에 두면서도, 타인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잘 알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그것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나서도 그 중심에 인류와 세계를 두어 발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분열케 하는 것이다.

이 모든 반항은 사랑에 의해 모든 것을 재창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여 인류와 세계를 다시 곤란으로 밀어넣는 잘못된 사랑 때문이다. 결국 세상에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리고 사랑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확대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고 오만한 자신에게로 향한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퇴보의 행위만을 보여주는 죄의 길로 쏠리게 하는 힘이다.

— 미셸 파스트,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 중에서

두리번거리지 말아라

이현주

건져 올린 그물에서
쓸 만한 고기를
거두는 것이
하늘나라일진대 (마태13:48)
시끄러운 거리에서
고요함을 누리면
또한, 하늘나라
아니겠는가?

그림자 있는 곳에
빛이 있듯이
시끄러움 있는 곳에
고요함이 있거늘.
두리번거리지 말아라.
그대 썩은 발 밑에
수정水晶같은 생명수가
흐르고 있느니.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 헌금:

김기석, 윤석원, 김희훈, 우동민, 박고오, 옥광재, 식승영, 박이안, 병준중, 규희일, 한노정, 완용현, 식래주, 임차임, 정혜원, 자심민, 방박임, 문규수, 성석연, 박박장, 혜경재, 경선영, 구명재, 자희영, 임승동, 박혜숙

월정 헌금:

고속이, 왕수철, 이명수, 김유관, 인성권, 걸중희, 문김남, 영운중, 혜정중, 노이동, 미동복, 향전순, 박범이, 희소순, 박이재, 박미영, 박옥순, 황선희, 박준희, 이기분, 이호원

감사 헌금:

장민숙, 박시내, 윤정덕, 고재중, 권미숙, 김성경, 박영균, 박지선, 무명1

100주년 기념 감사 헌금:

문홍일, 윤성중, 김윤정, 하진채, 양인하 (누계: 42,65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혜숙	차혜심	노미향	김애경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이소순	이재문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곽혜자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경수	이인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희우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김재광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임수연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명희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유혜경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정진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종려주일** :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2. **속장인도자 교육** :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3. **월례회** :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각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모든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4. **기도의 밤** : 4월 4일(수) 7시 30분부터 4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5. **부활절** :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대의 칸타타 연주가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늘 해 온 것처럼 부활란을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6. **봉사활동** : 종묘 앞 급식봉사가 4월 4일(수) 오전 11시 15분부터,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6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실시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7. **찬양제** : 5월 첫 주일은 교회 설립 9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 날 주일 오후에 선교회별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각 선교회는 찬양과 음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앙실천** :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을 전하는 부분을 찾아 읽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안다옥 속

* 토요봉사(7일): 노순옥 김희우

* 캄보디아 우물 기부 : 한선희 (생일) 조항범 오현정 (결혼기념일)

< 새교우 소개 >

2715 김민아 소속: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